



기동민·나경원 “잘해 봅시다” 7:30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후보(사진 오른쪽)와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동작구 사당동 남성시장에서 마주쳐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박 김무성 “대세 이미 결판났다” 친박 서청원 “역전드라마 펼칠 것”

새누리 오늘 전당대회 대표 경선...5명의 최고위원도 선출

새누리당의 7·14 전당대회 결과에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한때 친박 좌장이었다가 현재 비주류 대표격으로 통하는 김무성 의원과 친박(친박근혜) 원로그룹의 서청원 의원 가운데 누가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당내 역학구조는 물론 당·정 관계, 대야 관계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여기에 새 대표는 당장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7·30 국회의원 재보선을 진두진휘, 원내 과반의석 회복이라는 녹록치 않은 과제도 수행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김무성 의원이 한 발 앞서 가고 있는 가운데 서청원 의원이 맹추격을 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서 의원 측에서는 역전 승리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서 의원 측 핵심 관계자는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불리하지만 조직표에서 격차를 벌이고 있다”며 “전당대회 당일 역전 드라마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무성 의원 측에서는 이미 대세는

결판났으며 압승을 구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김 의원의 측근 관계자는 “일반 여론조사나 조직표에서 이미 상당한 격차로 앞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서 의원이 이런 추세를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문제는 격차”라고 말했다. 이 번 전당대회에서는 대표 최고위원(당대표)을 포함, 총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서청원, 김무성 의원과 함께 이인제·홍문종·김을동·김영우·김태호·김상민 의원, 박창달 전 의원 등 9명이 도전했다. 서청원, 김무성 의원이 선두에서 당 대표를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6인의 이인제 의원과 사무총장을 지낸 홍문종 의원, 경남지사를 지낸 김태호 의원이 중간 그룹을 형성하며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어 ‘40대 역할론’을 내세운 김영우 의원과 비례대표 초선인 김상민 의원, 박창달 전 의원이 추격전을 벌이고 있다. 김을

동 의원은 득표에 상관없이 ‘여성 몫’으로 지도부에 입성을 예약한 상태다. 9명의 당권주자는 전당대회 현장에서 정견발표를 통해 대의원들을 상대로 마지막 표시에 호소한다. 1인 2표제인 선거인단 투표 70%, 일반 여론조사 30%를 각각 반영하는 이번 전당대회 투표절차는 사실상 이미 시작됐다. 3개 여론조사에서 전국의 3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여론조사는 이미 12일 시작돼 13일까지 진행됐다. 선거인단 가운데 책임당원과 추천을 통해 결정된 일반당원, 청년 등은 13일 전국 시군구 투표소에서 투표를 실시했으며 14일 잠실체육관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는 대의원을 상대로 현장 투표를 진행된다. 전당대회에서는 일반 여론조사는 물론 선거인단 투표결과를 합산해 한꺼번에 결과를 발표한다. 선거인단은 총 20만4342명으로 대의원 9351명, 책임당원 14만4114명, 일반당원 4만1034명, 청년 9843명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양날의 칼’ 재보선 야권연대 고심

새정치, 승패 관건...‘야합’ 부정적 시선은 부담

야권이 7·30 재·보궐 선거일을 보며 남짓 앞둔 상황에서 복잡하게 얽힌 야권연대 문제를 풀이할 실마리를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울산 남구을을 제외한 14곳에 후보를 낸 것을 비롯해 통합진보당이 7곳, 정의당이 6곳에 후보를 냈다.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승리를 위해 연대를 통한 후보 단일화가 절실하지만 선부른 연대를 시도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어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주승용 사무총장은 13일 “1대1로 대결해도 쉽지 않은데, 조금이라도 표가 갈리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면서 “야권연대가 승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의당은 새정치연합에 당대 협의를 공식 제안하고, 통합진보당도 후보 별로 단일화 제안을 계속하는 등 연대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새정치연합도 “선거 중 자연스럽게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이 서로 자신의 당을 중심으로 한 단일화를 얘기하고 있어 연대 협상이 진척을 거두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수원 영동에 출마한 정의당 천호선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정치연합이 야권연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제안한다면 그때 생각해볼 문제”라며 “야권연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히려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노회찬·천호선 후보 중 한명 이상은 단일 후보가 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이 출마한 서울 동작구과 수원영동(영동)은 새정치연합으로서도 포기하기 어려운 전략지역이다. 이 중 동작구의 경우 정의당은 노 전 대표의 귀환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새정치연합은 ‘공천 파동’까지 겪어가며 어렵게 후보를 세웠다는 점에서 내심 상대 당이 물러서기를 바라고 있다. 이같은 동상이몽에 ‘이기기만을 위한 연대’에 국민들의 반감이 커진 것을 고려하면 선불리 연대에 나서서 것이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주 사무총장은 “최근 몇년간 국민이 연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됐다. ‘야합’으로 비쳐지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安 “재보선, 5곳 현상 유지만해도 잘하는 선거”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13일 7·30 재보선 선거 전망에 대해 “생존하게 보면 전체 15석 가운데 5곳만 우리가 갖고 있던 데서 현상유지만 해도 잘 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커피숍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 과정을 겪으며 미리 사전조사를 했는데 다 어려웠다. 시기적으로도 휴가철이 아니냐”라면서 이같이 내다봤다. 그러면서 “선거 때마다 새누리당은 업살을 피워놓고 그보다 성적이 좋으면 스

로 면죄부를 주면서 국정운영을 밀어붙인다”며 “반대로 야당은 굉장히 많이 이긴다고 기대치를 높인 다음 실제로 이겼는데도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스스로 벌을 준다.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전략공천 논란 등 공천갈등에 대해 “역대 재보선을 전부 조사해보라. 대부분 전략공천이었다”며 “오히려 이번은 경선을 제일 많이 한 공천이었다. 신진에게 기회를 주고 중진은 ‘선당후사’하는 원칙도 제대로 지켜졌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안 대표의 발언에 대해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15석 중 우리가 갖고 있던 5석만 이겨도 이긴 것이라 밝힌 것은 여당처럼 업살을 피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지나친 업살은 일선의 사기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전투 중 장수는 말을 달리게 해야 한다”며 “안 대표도, 우리도 전승을 위해 지금은 뭘 때”라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새정치 당내 위상도

7·30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 후폭풍으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원내 사령탑인 박영선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으로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우선 새정치 민주연합의 김·안 두 대표는 오락가락 공천으로 재보선 결과에 따라 진퇴마져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몰려있다. 이에 반해, 박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과의 회동을 성공리에 마치면서 정치 복원의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김명수 사회부총리,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가 현실화된다면 박 원내대표는 정치적

김한길·안철수 ‘공천홍역’ 흐림 박영선 ‘靑회동 주가상승’ 맑음

성과를 인정받으면서 입지를 더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취임 이후,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 상임위 배정 등을 별다른 논란 없이 마무리하고 여당과의 현안 조율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김·안 두 대표와 박 원내대표의 당내 위상과 관계는 재보선 성적표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7·30 재보선 성적에 저조할 경우 당내의 분란이 현실화되면서 박 원내대표

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다면 양 대표와 원내대표의 관계는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 대통령이 김명수 사회부총리를 제외하고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임명 등을 강행할 경우 박 원내대표는 오히려 난처한 입장에 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앞으로의 금융! 신협이 함께 합니다.

하나로대출

↑한도는 높게
Up&Down
↓금리는 낮게

- 집 담보도
- 상가 담보도
- 전세보증금 담보도
- 자동차 할부금 대출도
- 카드론·현금서비스도

모든 대출을 하나로! 통합관리 해드리겠습니다

추천 정부보증대출 햇살론 최고 2,000만원

광주원광신협

공동점 227-4474 금호점 383-4474 풍암점 653-4474

NAVER *견적상당* 대비플라워 등 *저렴*으로

대비플라워

죽아화완3단 근조화완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옥상·외벽·내벽·주택 **방수**

전문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 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비덕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미화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